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분석과 통합 방향* - 체육 분야와 비교하며

신중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올해로 한민족은 광복 73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된 지 68주년 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는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난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촛불 혁명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완화되었다. 돌이켜 보면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한민족의 역사는 파란만장하였다. 그 사이 동서 냉전으로 인해 한민족이 갈라서는 시련을 겪었다. 그 결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였다. 잦고 긴 대립과 반목의 시기 그리고 짧은 화해의 시기가 반복되면서 국민 특히 이산가족의 애간장을 녹이는 세월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남측과 북측의 이질감은 점차 심해졌다. 따라서 계획적이든지 갑작스럽든지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남북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은 한반도가 연착륙하기

^{*}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연구 결과물이 아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전문용어 분석과 통합을 위해 다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 온 연구진(전은진, 김유진, 엄태경, 이성우 선생 등)이 2017년도에 국립국 어원에서 발주한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사업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물이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남북 체육 전문용어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기술하였다.

위한 선결 과제이다.

한민족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남측과 북측이 동족이라는 가장 확고한 근거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분단 기간 동안 남측과 북측의 언어는 당국의 언어 정책이가미되면서 점점 달라져 왔다. 아직 문법 체계상의 큰 차이는 잘 포착되지 않지만 광복 이후 신생어와 순화 대상어를 중심으로 생긴 어휘의 이질감은 적지 않다. 따라서 남북 어휘의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은 남북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이다. 아니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통일, 그리고 그 이후의 동족 간 연착륙을 위해 우선적인 일이다. 아울러 언어 통일은 남측과 북측을 하나로 묶어 주는 구심점이 된다.

물론 어휘의 통합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 즉 어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이에 따른 정치한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어휘를 통합할 때 먼저 논의되어야 할 대상은 고빈도 일반 어휘이다. 그러나 남북의 고빈도 일반 어휘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같은 한국어이므로 고빈도일반 어휘 역시 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휘 통합의 물꼬를 트고 실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전문용어의 통합이다. 분야마다 분단 이후서로 다른 경로로 수용된 전문용어는 남북의 차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일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에 기반이 된다. 아울러 일반 어휘의 통합에도 적지 않은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모든 전문용어를 짧은 기간에 통합할 수는 없다. 우선 통일 세대의교과 전문용어를 통합해야 한다. 그 결과를 심화된 전문용어 혹은 전수의 전문용어 통합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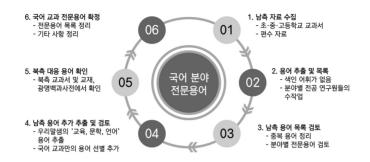
따라서 이 글은 남북에서 현용하는 국어 교과서에 드러난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현황을 표와 그림으로 비교하면서 통합의 길을 소개 하고자 한다. 아울러 체육 분야의 전문용어 분석과 통합의 사례도 비교하면서 정합적인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어 교과 자료 수집과 전문용어 목록 정리

최근 전문용어 구축(정비, 통합, 조화, 관리)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를 비롯하여 다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남북 전문용어의 구축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뒤따른다. 첫째 통일 시대에 남북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대통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둘째 통합의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전문용어가 통용되는 산업의 기술 표준화를 증진한다. 셋째 통합된 전문용어를 기반으로 통일세대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이 모든 필요성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 수렴한다.

이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다급한 필요성은 통일 시대의 교과서 개발 이다. 그 초석이 되는 교과 학술 전문용어의 구축은 남북의 교과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용어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나아가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의 첫걸음은 뜻풀이의 합치까지 고려한 남북의 전문 용어 대비 목록을 확정하는 것에서 토대가 마련된다. 남측과 북측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대응 용어 목록은 다음의 6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 추출 과정



무엇보다도 <그림 1>의 1~4단계에서 추출한 남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인 만큼, 1순위로 북측 교과서에서 대응하는 전문용어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 왜냐하면 북측 교과서는 북측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합의 전제가 되는 학술 전문용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순위에서 찾아지지 않는 대응 용어는 2010년 이후에 평양에서 출간된 ≪광명백과사전 – 국어 편≫을 2순위로 참조한다.

그림 2 북측 국어 교과 전문용어 대응 목록 설정 자료



초급 중학교 1, 2, 3의 《국어》, 고급 중학교 1, 2, 3의 《국어문학》, 고등 중학교 1, 2, 3의 《국어 문법》을 연구진이 복수로 교차 검토하여 목록을 추출하였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남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에 모두 대응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다음으로 《조선말대사전》을 3순위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로 만들어져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전문용어의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어 남측의 전문용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그럼에도 대응 용어를 찾기 어려울 때 4순위로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을 참조하였다. 끝으로 5순위로 2007년 국립국어원의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를 활용하였다. 보이지 않는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위의 자료들과 6단계의 과정을 활용하고 남측과 북측 국어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총 2,200개의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대응 목록을 방대한 엑셀 파일로 구축하였다.

표 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목록 사례(총 2,200개)

NEW, N. I	교계세탁 -	Mol -	한문용에 -	남작 용어 -	동의어 4 ~	美養年 。	208 -	988 -	목속 대용에 ~	- 3III P3	891,2 -	892,2 -	조선함역 -	뜻뿐이 -	국업국어 -	기타(종 -	7102 -
1	우리함생	81	~구가용화	¬^구개各회(¬口裏書化)		平均偏僻的 5	1:1	AB	뒤자음구개음회		10-450						
2	우리활성	문학	가격	75年(初期)	可用效果的特	가족 따위의 1	Q:1	AA	가극		9,339			包括他们 车间线	自印度 78	비슷한당 리	tit # (beets
3	11	문학	가락	가락02		1,每4款款	1:1	AA					714002	② 本利利 役司	彩 音层可向	이슬리는 조모	10 BULL B
- 4	7(0)	문학	가면국	가면-국(官臣劃)		항송 42 14	1:1	AA	가면국		9,662			स्ट-स्ता म स्थ	(A) 整章 (A)	2 97b 84	祖母 唐代 在
5	동요이	81	가벼운일을	가벼운-입술소리	순경-용(제	(経音)	Q:1	AB	순경용								
6	33	문학	7)-10	75-14-10(歌劇)		조선 조기에	13	AA	가사		9,58		75/403	\$\$1746 4	79.44		
7	7182	문학	7516	가사(歌詞)		가락,가유, 호	1:1	AA	가사		1,5			\$\$P\46 41	149989	[7] M (O) C) 734	福田 銀行 市
8	유리함성	89	가사문학	가사^문학(歌劇文學)		조선 조기에 (131	AB	가사		4-135			GGP)시는 41	145989	비슷한말 가	(東京)
9	우리활성	문학	가내용	가세염		하시를 지율 9	1:1	Aa1	가세렴		우리함병			가식용의 목인	0.		
10	参生性	81	가설법	가설-법(實驗法)	가정-법(함	(建造)	Q:1	AB	가정법								
11	- 11	문학	가대화장수호	김수로왕^신화(金音舞王神郎	i)	가야의 시호	1:1	AB	수로의출생당		9,77					용어 다음.	
12	무리함성	6.0	가운뜻소리	가운뎃소리	9-B(+T)	+∰*504.	Q:1	Aa1	가운데소리		우리함병			가운뜻소학회	確於性.		
13	우리함생	80	가운젖함	가운댓정	G-12 (+ St)	문장 부모의 1	Q:1	Aa1	가운데점		우리함성			가운옷합의 4	reor.		
14	동의적	要な	가전체	가전-제(假傳體)	가전체^쇼	公(保存課	Q:1	AB	의인전기체소설								
15	우리활성	문학	가전체수설	가전체^소설(假傳體小說)	가전-제(報度	사용을 되었다	Q:1	AB	의언전기체소설		4-147					비슷한밤 가	対策制 行む・
16	우리함설	22	가장병	가정-법(報志注)	7/位-位/教育	운장에서 나타	Q:1	AA	가정법		10-341		가장법	CONT ST	언어의 동사	비슷한말 가	4-10(根税(4)
17	11	문학	가장수설	가정^소설(家庭小院)		기,가림에서	1.0	AB	가정세태소설		9,179		가정수설	日田本田 ひがっ	5.7/10/8/14	可能性 小葉	사회수술이나
18	동의이	문학	가정수설	가정^소설(家庭小說)			1.5}	AA	가정소설	가정세대:	노설						
19	유리활성	2.5	가증이	가-주어(餐主語)		일부 합의역사	1:1	AA					가주의	混合の田 多年	C어에서 용1	PRO BH	(皇 건타건 4
20	우리활성	81	7101	乃朴(仮像)		한작 유석(기)	1:1	AA	가차		10-524		2)40	② 형식료 주건	나 많이는건	장고 어린 성	9(8 5), 5 P
21	유리활성	6.0	7190%	가차-자(資産字)		নদান ভাছার	3.3	AB	가자문자		10-523					阿贝斯里 70	中海をなる。
22	55	89	가치한	가치-건(價值朝)		সহস্থ বহা ব	1:1	AA					가지만	사항이나 사용	의 기치의 Q	0 252 55	2 F 3 E 5 C

표 2 남북 국어 교과 세부 분야별 전문용어 대응 유형 및 분포

유형	AA유형 개수	Aa유형 개수	AB유형 개수	계
분야	(백 분 율)	(백 분 율)	(백 분 율)	
문법	530	31	601	1,162
	(45.6%)	(2,7%)	(51.7%)	(100%)
문학	496	65	165	726
	(68.3%)	(9.0%)	(22,7%)	(100%)
기능교육(일반)	253	24	35	312
	(81.1%)	(7.7%)	(11,2%)	(100%)
총합	1,279개	120개	801개	2,200개
	(58.1%)	(5.5%)	(36.4%)	(100%)

표 3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 대응 유형 및 분포2)

유형		전문용어의 예(남-북)	개수(백분율)
^ ^	AA	높이뛰기-높이뛰기, 축구-축구, 맨손 체조-맨손체조	209개(17.8%)
AA	Aa	농구-롱구, 배드민턴-바드민톤	29개(2.5%)
Α	В	가드-방어수, 코너킥-구석차기, 패서-연락	935개(79.7%)

<표 1>, 〈표 2>, 〈표 3>에서 'AA', 'Aa', 'AB' 유형은 남북 전문용어의형태적 일치도를 나타낸다. 즉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일치하여 동질성이 확인되는 것'은 AA형, '남북의 서로 다른 어문 규정으로 인한 표기차이만 가지며 사실상 동질성이 확인되는 것'은 Aa형,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각기 달라서 이질성이 드러나는 것'은 AB형으로 구별한다. 큰 틀에서 Aa형은 AA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동질성(AA형, Aa형)과 이질성(AB형)의 비율은 63.6%와 36.4%이다.³에부 분야별로 비율의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간의 이질성에 대한편견을 극복할 만큼 동질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표 3>은 남북 체육 분야전문용어의 형태적 유형 및 분포를 보여 준다. 인문학적 특히 국학적 성격이강한 국어 전문용어의 사례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체육 분야에서는 AA(a)형이 20.3%, AB형이 79.7%로 나타났다. 정반 비례라고까지는 할 수

²⁾ 체육 분야 전문용어 목록은 다양한 종목을 고려하여 구축하였다. 대표적인 종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검도, 골프, 농구,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복싱, 볼링, 사격, 사이클링, 소프트볼, 수상 스키, 수영, 스케이팅, 스키,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테니스, 태권도, 하키, 핸드볼 등, 북측의 《광명백괴사전》 체육 편이 큰 도움이 되었다.

³⁾ 여기서 우리는 작지만 고마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남북 교과서에서 쓰이는 전문용어가 이미 60% 이상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가설 단계이지만 적어도 교과 전문용어를 통해서 상식 이상으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용운(2015)에서 《표준국어 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전문어 표제어를 비교하였는데, 대략 66%의 전문어를 서로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형태(type) 중심의 사전의 표제 전문용어와 토큰(token) 중심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 전문용어와의 차이 때문이다. 실제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더 높아서 생각보다 길등의 소지가 적고 자연스러운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

없지만 그만큼 이질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체육 분야는 전문성, 학술성보다는 대중성이 강조되면서 표준화가 덜 되기도 하였고, 남측에서는 방송 등에서 지나치게 외래어를 사용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남측 체육 분야의 전문용어는 인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반면 국어 교과 전문용어는 자연스러운 조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동질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중진 외(2015, 2016)에 나타나듯 수학 및 자연 과학분야에도 드러난다.

끝으로 형태 유형별 사례와 대응 용어 공백의 사례를 표로 보이면 다음 과 같다. 대응 용어 공백의 사례는 통일 시대에 국어 교과서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꾸리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공백도 있지만 우연한 공백도 있어서 앞으로 더 고구되어야 한다.

표 4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대응 용어 공백 사례

유	형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예(남-북)				
	AA	가사-가사, 사실주의-사실주의, 주어-주어 등				
AA	Aa	논제-론제, 오류-오유, 클라이맥스-클라이막스 등				
AB		결말-마감, 동음어-소리같은말, 모음탈락-모음빠지기 등				

추가 유형	전문용어의 예
AX (남측에만 있는 전문용어 유형)	공손성의 원리 - X, 교차조사식 토론 - X, 압존법 - X 등
XB (북측에만 있는 전문용어 유형)	X-개략수사, X-맺음술어 등

3.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3.1. 어종 분석

이 글에서 제시하는 통합의 알고리즘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지는 않지만 어종 분석을 통해서도 남측과 북측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사유를 확인하고 동질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아래 <표 5>는 남북 국어 교과 의 세부 분야에서 나타난 고유어, 한자어, 혼종어 등의 다양한 어종 유형의 개수를 형태 유형별로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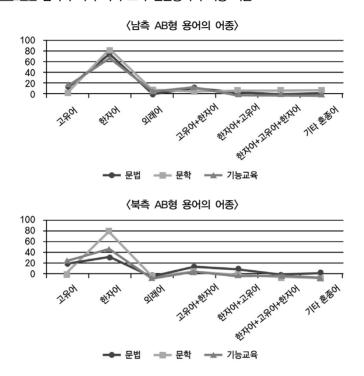
표 5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분야별 어종 유형의 개수

유형 분야	AA형	Aa형(남/북)	남측 AB형	북측 AB형
문법	8	5/6	10	13
문학	5	4/3	8	6
기능교육(일반)	5	1/2	4	5

남북이 동일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AA형에서는 문법 분야가 더 다양한 어종 결합을 이룬 전문용어가 나타난다. Aa형에서 조사 '-의'를 사용한 북측의 전문용어(김수로 신화-수로의 출생담, 반의 관계-반의의 관계)로 인해 북측이 남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였다. 문법 AB형에서 남측의 '시옷 불규칙 활용', '러 변칙 활용' 등의 전문용어를 북측에서 '《人(ㄷ)-X》탈락', '《X-러》 삽입' 등과 같이 로마자를 사용하여 풀어 씀으로써 북측이 남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다. 반면에 문학 AB형에서 남측의 '사회주의리얼리즘', '러시아 12월파 당원 문학' 등의 외래어가 포함된 전문용어를 북측에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십이월파문학' 등과 같이 한자어로만나타내어 남측이 북측보다 어종 유형이 다양하다. 기능교육 AB형에서 북

측은 외래어를 사용한 전문용어는 없었으나 남측보다 한자어와 고유어를 혼종한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3 남측과 북측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어종 비율



< 그림 3>은 대응 용어의 차이를 보이는 AB형에서 남측과 북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어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극복해야 할 이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월등히 많고 기타 어종은 '한자어+고유어'의 혼종어 사용이 보이나 대부분의 어종 유형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반면 북측은 세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만 한자어가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고유어 사용 빈도도 남측과 비교했을 때

북측이 월등히 높고, 혼종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도 제법 사용하고 있다. 남북에서 세세한 차이가 드러나지만 전반적인 그래프의 형상은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남측과 북측의 어종 분포가 거시적으로는 동일한양상을 보인다는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즉 남북은 공히 '한자어' 유형이 많다. 다만 남측에 비해 북측의 비율이 조금 더 낮을 뿐이나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까지 포함하면 서로 대동소이하다. 향후 통합된결과의 어종 분포도 이러한 방향을 유지하면 갈등을 극복하는 자연스러운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체육 분야의 어종 비율은 이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남측체육 분야 전문용어에서는 외래어의 사용이 89%로 높게 나타나 한자어우위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와 대조를 이룬다. 북측의 체육 분야 전문용어는 또 다른 어종 비율을 보여 주는데, '고유어' 37%, '한자어' 31%, '고유어+한자어' 27%가 정족(鼎足)을 이룬다. 어느 어종이 월등히 높다고 할 수없다. 이 결과는 남측이 체육 분야 전문용어에서 외래어를 남용하는 반면 북측은 고유어 중심으로 언어 순화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보인다. 향후 체육 분야의 통합에서는 북측의 전문용어가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3.2. 조어 분석

다음으로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과정에서 확인되는 품사 빈도 와 워어 빈도를 확인하면서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해 보겠다.

⁴⁾ 고마운 암시는 북측 전문용어에서 한자어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닫혀 있거나 거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과로 남북 언어의 통합 가능성은 전문용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다.

표 6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AB형의 품사 및 원어 현황

남측 품사 표지 (빈도)	북측 품사 표지 (빈도)	남측 품사 표지 (빈도)	북측 품사 표지 (빈도)
보통명사(941)	보통명사(930)	관형사(3)	용언의 연결형(9)
접미사(198)	접미사(157)	용언의연결형(2)	부사(8)
어근적형태소(62)	용언의명사형(126)	의존명사(2)	수사(1)
접두사(39)	용언의관형형(61)		
용언의명사형(17)	조사(38)		
용언의관형형(16)	접두사(33)	남측 원어 표지	북측 원어 표지
표지 보류(15)	표지 보류(24)	한자어(1,099)	한자어(748)
 고유명사(10)	어근적형태소(18)	고유어(200)	고유어(655)
조사(6)	고유명사(166)	외래어(16)	혼종어(22)
부사(4)	관형사(12)		외래어(8)

<표 6>은 남측과 북측이 대비되도록 품사의 빈도를 보여 준다. 동질성의 차원에서 보면, 역시 전문용어의 품사가 명사 위주로 형성되는 특징 때문에 남북 모두 보통 명사의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명사 파생접미사도 공히 2순위로 드러났는데, 모두 전문용어 명사를 조어하는 표지인 셈이다. 그리고 빈도순에서 차이가 드러나지만 남북이 공히 같은 품사유형을 통해서 조어 과정을 거쳐 전문용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향후 극복해야 할 이질성도 드러난다. 남측과 북측의 AB형 전문용어를 비교했을 때, 북측의 전문용어를 구성하는 품사 중 용언의 활용형이 눈에 띈다. 가령 '순경음(남)-가벼운 입술소리(북)', '원순모음(남)-등근모음(북)', '음성모음(남)-어두운모음(북)'이 그 사례이다. 이것으로 북한의 전문용어는 구절 구조로 풀이식 용어를 채택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한편남측에 비해 북측의 원어 표지 중 고유어의 비중이 높은데, 이것은 북측의 모든 전문용어 분야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다음은 남북 국어 교과 중에서 문학 분야의 68.3%를 차지하는 AA형 전문용어의 조어 구조와 그 빈도 그리고 예시를 보여 주는 표이다. 즉 <표 7>은 사실상 문학 분야의 7할을 차지하므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조어 구조를 분석한 결과인 셈이다.

표 7 문학 분야 AA(Aa)형 용어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⁵⁾

	유형	빈도	예
	nc	286	문학, 복선, 산문, 시, 운문, 은유 등
	nc^nc	124	고전^문학, 구전^설화, 국문^시가 등
형태 결합 (22개 유형)	nc^xs	105	간결^체, 강조^법, 예^학, 문학^성 등
(== 11 11 0/	nc^xs^nc	7	극^적^갈등, 시대^적^배경 등
	mm^nc	6	단운^시, 단행^시, 평^시조 등
	ch	263	감상, 극, 단편, 문제, 소재, 시점 등
	ch^ch	239	가면^극, 구비^전설, 낭만^주의 등
원어 결합 (12개 유형)	ch^ch^ch	14	고전^문학^작품, 일^인칭^소설 등
(11 11 6)	ko	13	가락, 곳, 글, 줄거리, 판소리 등
	ie	11	다다이즘, 드라마, 모더니즘, 카프 등
	nc/ch	263	가사, 극, 막, 소설, 소재, 주제, 행 등
형태/원어	nc/ch^nc/ch	113	가정^소설, 구전^문학, 칠언^절구 등
결합	nc/ch^xs/ch	104	간결^체, 과장^법, 서정^성 등
(31개 유형)	nc/ko	13	곳, 글, 끝, 줄거리, 판소리 등
	nc/le	10	다다이즘, 모더니즘, 몽타주 등

결과적으로 형태 결합 유형은 총 22개가 나타나고 <표 7>은 그중에 빈 도가 높은 4개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원어 결합 유형은 12개인데 상위

⁵⁾ 약호는 다음을 뜻한다. nc-보통 명사, xs-접미사, mm-관형사, ch-한자어, ko-고유어, ie-외래어.

반도 5개의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이 두 정보가 결합된 유형이 31개로 다양한 조어 구조로 나타난다. <표 7>은 그중에 상위 5개를 예와 함께 제시해 본 것이다. 형태 결합에 굵게 표시한 사례와 같이 이미 남북이 모두문학 분야에서 이질감 없이 일반 명사를 활용한 조어 방식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으며 문학 분야는 특히 단일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수학 및 자연 과학과 체육 분야와는 달리 문학이 자생적인 성격이 강한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 문학 분야는 원어 결합에 굵게 표시한 사례와같이 한자어 전문용어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어끼리의 결합이 많은 것도 특징인데, 역시 문학이 한국 근대화 이후의 자생학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4.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알고리즘과 방향

다가올 통일 시대에 AB형 전문용어들은 형태적으로 달라 의사소통에 불편을 줄 것이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 대개 그 통합 방식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는 방법과 남북의 전문용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전문용어를 만들어 통합하는 방식은 자칫 남북의 갈등을 초래하고 치밀한 합의를 위해 장고를 요하면서 교각살우할 수 있다. 한편 분단의 현 상황에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설사 국가의지원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예비적 단계가 충분히수립되고 진행된 후에나 실천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 중에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기준들에 더 잘 부합하는 하나의 전문용어를 선택하거나 복수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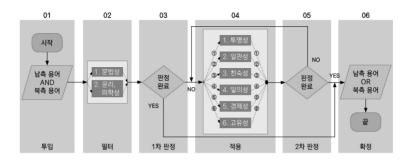
그림 4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입각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



<그림 4>에서는 통합 기준들의 적용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해 1~8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앞선 번호가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필요한 우선 적용기준이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준마다 마치 퍼즐 맞추기의 조각처럼 떼어 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준들의 적용이 고정식이 아니라변이식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즉 전문용어 분야마다 용어의 특색이 있는데, 남북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분야별 특색에 따라서 기준들의 적용 순위를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Lego)의 블록처럼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총목록, 유형, 어종, 조어 방식 등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특색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적용 기준의 순위를 반영한 통합 알고리즘을 권장한다.

그림 5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판정 알고리즘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알고리즘의 원리는 이렇다. 대응하는 남측의 전문용어(A)와 북측의 전문용어(B)가 필터 단계에서 먼저 선택 판정을 받는다. 대응 용어들 중에 어느 하나가 비통사적이거나[역행 동화(남)-올리닮기(북)에서 '올리닮기'는 비통사적 합성에] 욕설, 비하, 혐오 등의 부정적 가치개념을 가지거나 연상시키면[언어학사(남)-언어학설사(북)에서 '설사'는 혐오적 개념을 연상시킴] 1차 판정이 되어 우선적으로 걸러지고 바로 확정단계로 가서 대응 전문용어가 선택된다. 그런데 이미 남북 교과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대응 용어들은 이 과정을 통과한다. 대부분의 대응 용어들은 적용 단계에서 위계적 ·순환적으로 기준 적용을 받는데, 투명성에서 대응 용어 간의 우위가 판정되면 확정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순환하여 일관성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우위가 판정되면 확정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순환하여 일관성의 적용을 받는다. 남북 전문용어의 대다수가 적용 단계에서 우위가 판정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복수 전문용어로 남거나 제3의 전문용어를 권장하게 된다.

표 8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기의-실체'의 판정 사례

기준	용어	통합 기준	남 기의	북 실체
필터	문법성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음	=	=
기준	윤리미학성	비속성 없음, 미학성 동일	=	=
	투명성	'실체'보다 '기의'가 그 뜻(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말에 있어서 소리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르는 말)을 추론해내 기 유리하므로, 남측어 유세)	>
	일관성	'기의(남측례: 기표)'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	>
위계	친숙성	기초 어휘 목록에 북측어 '실체'가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		(
기준	일의성	남측어 5개(동음어 5개), 북측어 2개(동음어 1개, 다의어 1개)이므로 북측어 우세		(
	경제성	두 용어 모두 2음절로 동일	=	=
	고유성	'한자어'로 동일	=	=
최종 판정		위계 판정	기으	(남)

가령 문법 전문용어 '시니피에(signifié)'에 대해 남측의 용어 '기의'와 북측 대응 용어 '실체'는 문법성을 어기거나 윤리 미학성을 어기는 사례가 아니므로 필터 단계를 대등하게 통과한다.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 위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위 위계인 투명성에서 북측의 '실체'는 소쉬르의 개념인 '시니피에'를 뜻하기에는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불투명한 것으로 판정되고 '기의'가 상대적으로 그 의미를 추론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확정 단계에서 최종 판정은 남측의 '기의'가 권장된다. 물론 상위의 기준에서 판정이 나더라도 그 하위의 기준들에서도 모두 판정한다. 왜냐하면 이 위계 기준은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권장 알고리즘이고 레고 블록처럼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위계 기준의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61

<그림 5>와 <표 8>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판정되었는데, 총 801개의 AB형 중 남측의 전문용어는 307개 선택되었고 북측의 전문용어도 307개 선택되었다. 그리고 끝내 판정되지 않은 187개 의 전문용어도 있었다. 이미 남북의 국어 교과 학술 전문용어는 학술적인 기준들에 잘 맞도록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기준 순서와 그 변형별로 남북 전문용어가 판정된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 9 남북 국어 교과 AB형 전문용어 801개의 최종 판정 결과

기준	기준 순서	남	북	동일
1. 기본 기준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일관성-친숙성-일의성- 경제성-고유성	307	307	187
2. 변형 1	문법성-윤리·미학성- 친숙성-경제성 -투명성-일관성- 일의성-고유성	306	308	187
3. 변형 2	문법성-윤리·미학성- 투명성-일의성-경제성- 친숙성- 일관성-고유성	346	268	187
4. 변형 3	문법성-윤리·미학성- 투명성-고유성 -경제성-친숙성- 일관성-일의성	364	250	187

여기서 변형 1은 국어 교과에서 높은 변별력을 보이는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변형 2는 <ISO 704>의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변형 3은 자연 과학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된 결과이다. 변형 2와 변형 3은 다소 남측 편향적 판정 결과를 보여 주기 때문에 권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본 연구의 권장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는 남측과 북측이 각각 307개씩 선택된 절묘한 결과이다. 친숙성과 경제성을 앞세운 변형 1도 혐의에 따라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다.

⁶⁾ 남북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한 기준 8개에 대해 위계를 떠나서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어떠한 분포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선정한 기준 들이 실제 전문용어 통합에 있어 얼마나 큰 효용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남북 체육 분야 AB형 전문용어 935개의 최종 판정 결과

기준	기준 순서	남	북	동일
1. 기본 기준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경제성-고유성-친숙성- 일관성-일의성	385	536	14
2. 변형 1	문법성-윤리·미학성- 친숙성 -일관성-경제성-고유성- 투명성-일의성	86	835	14
3. 변형 2	문법성-윤리·미학성- 일관성 -친숙성-경제성-고유성- 투명성-일의성	118	803	14
4. 변형 3	문법성-윤리·미학성- 경제성 -고유성-친숙성-일관성- 일의성-투명성	375	546	14

참고로 <표 10>은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의 판정 결과이다. 남북 체육 분야 전문용어의 총목록, 유형, 어종, 조어 방식 등 학술적이고 객관적인용어의 특색을 파악하여 적용 기준의 순위를 반영한 통합 알고리즘에 따르면 남측 385개, 북측 536개가 우위를 보인다. 결과는 북측 편향적으로 판정되는데, 남측에서의 외래어 남용이 학술적인 검정의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변형 1과 변형 2에서는 숫제 북측 전문용어 위주로 판정된다. 북측의 체육 분야 전문용어는 자체 순화를 겪었던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나마 경제성을 앞세운 변형 3이 권장 알고리즘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다. 향후 체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활용할 수도 있는 협상 카드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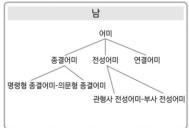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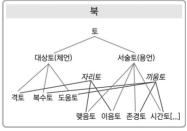
이것으로 남북의 전문용어 현황과 통합의 실제를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체육 분야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알아보았다. 이 글의 내용이바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통일로 가는 길에

혹은 그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소통을 위해 전문용어 통합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하나의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당연히 이 카드는 어느 한쪽이 이기는 카드가 아니다. 이 글이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카드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남아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남기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대응 용어의 개념 대응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 형태 중심의 통합알고리즘을 소개했지만 밑 작업과 전제에서 남북의 사전 뜻풀이, 전문가들의 개념 확인 자문, 북한 이탈 주민의 면담과 설문 조사에서 늘 개념의 합치를 바탕으로 하였다. 개념이 일치하는 대응 용어가 많았지만, 부분적으로일치하거나, 미세하더라도 개념 간에 차이 나는 대응 용어도 있었다. 이런세밀한 부분의 통합 논의도 상호 수용의 자세로 뒤따라야 한다. 전문용어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념 체계에 따라 전문용어의 형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아래의 그림처럼 남측과 북측의 문법용어 중에 애초 체계가 다른 사례도 있다.

그림 6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어미-토'의 체계





이처럼 남측과 북측의 개념 체계가 달라서 이 글의 알고리즘만으로는 형식을 통합하는 일이 쉽지 않고 이 글의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전에 형식을 통합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전문용어 체계와 개념 체계를 동시에 정비하고 통합하는 '조화(harmonization)' 작업 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은 통일 이후 국어 분야의 이해나 연구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앞에서 남북 전문용어 사이에는 AX형, XB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향후 국어 분야의 교과가 알차고 국어 분야의 연 구가 깊이 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백과 우연한 공백을 구별하고 그 X를 버리지 않고 채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단기에 그치면 안 되겠다. 교과 과정의 차원이나 수학, 물리, 생물, 화학 등 자연 과학 및 체육, 그리고 본 연구의 영역인 국어 분야에서 남북 교과 전문용어를 자원으로 해당 분야의 통합 방안을 꾸준히 제시해 보았다. 올해는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 통합안을 용 감하게(?) 마련 중이다. 향후 음악, 미술 등 예체능 분야도 정밀한 목록 구축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발전적으로 통합 방안이 다듬어져야 한다. 교과 과정의 통합 방안이 마련되고 나면 실제 생활과 밀착된 분야, 가령 정보 기술(IT), 법률, 농수산, 의학, 건설, 교통 등의 전문용어 통합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주관하여 '남북 전문용어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 남북의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때에 부족한 연구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밑그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보선 외(2016),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 연구≫ 62, 국어교육학회.
- 고영근 외(2004),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 고정희 외(2015), "남북한 초, 중, 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 학습 내용 선정 및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구본관 외(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4),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워.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역락.
- 김남돈(2003), ≪('토'를 중심으로 본) 북한 문법 이론의 발전 과정≫, 한국 문화사.
-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병문·주영훈(2017),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겨레말큰사전』의 경우 ",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 김선숙(2014), "남북한 규범문법의 격 표시 형태소 처리의 비교", ≪한어
 - 문교육≫ 31,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유진·신중진(2016), "남북 수학·과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전문 용어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6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김유진·신중진(2017), "남북 자연과학 심화 전문용어의 형태적 분석 물리· 생물 분야를 중심으로 –", ≪겨레어문학≫ 58, 겨레어문학회.
- 김정선(2015), "국어교육의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 교육연구≫ 58, 국어교육학회.
- 김진숙 외(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1≫, 한국교육 과정평가워.

- 김진용 외(2007), ≪전문용어 구축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배선미·시정곤(2004), "한국어 전문용어 조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 ≪한국어학≫ 25, 한국어 학회
- 백과사전출판사(2008). ≪광명백과사전 6≫. 백과사전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2011), ≪광명백과사전 7≫, 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하우.
- 신중진·엄태경(2016), "심화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과 그 실제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 신중진 외(2015),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 국립국어원.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신중진·이성우(2016), "기초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한국 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 양명희(2003),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엄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엄태경·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 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 ≪국어학≫ 82, 국어학회.
- 오세진·신중진(2016), "남북 체육 기초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우리말 연구≫ 70. 우리맠글학회.
- 유현경(2013), "표준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문법 교육≫ 19, 한국문법 교육학회.
- 유현경(2015), "학교문법 정립에 있어서 표준문법의 역할", ≪우리말연구≫ 43. 우리말글학회.
- 이대성 외(2013),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이대성(2015),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 사업회.

- 이성우·신중진(2016), "심화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 문화연구≫ 66,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이향근(2017¬), "통일 시대 초등 국어교과서 설계를 위한 한국 북한 연변의 초등 국어과 교육내용 비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01회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향근(2017ㄴ), "남한·북한·연변의 기초 문식성 교육 내용 비교", ≪한국 초등교육》 28-1,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이현주(2007 ¬),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전문용어: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새국어생활≫ 17-1, 국립국어원.
- 이현주(2007 L), "전문영역 표기의 사전적 기능에 대하여: 일반언어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2015 ¬), "전문용어 사전의 이론적 배경과 그 흐름", ≪프랑스학연구≫ 74, 프랑스학회.
- 이현주(2015 L), "전문용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26, 한국 사전학회.
- 이현주(2015 c),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 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현주 외(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국립국어원. 전수태(1990),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3: 한자어·외래어 편≫, 국어연구소.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 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 전수태(2010), "남북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한국어 교육학회.
- 전수태·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1 발음·맞춤법 편≫, 국어연구소.
- 전수태·최호철(1989 L),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 2. 고유어 편≫, 국어 연구소.
-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조은경·서상규(2000), "전문용어와 전문언어 말뭉치",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 주재우 외(2017),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 으로 –", ≪작문연구≫ 33, 한국작문학회.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대한 소고", ≪사회 언어학≫ 25-3, 한국사회언어학회.
- 최용기(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인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교과서 편수 자료Ⅱ: 인문·사회과학/ 체육·음악·미술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7),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한용운(2015),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 허재영(2014), "전문용어 정책의 역사",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 홍종선 외(2009), ≪국어 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 Antia, B.A. (2000),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An alternative framwork of practice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Grice. H. P.(1967), «Logic and Conversation, Unpublished MS. of the Willaim James Lectures», Harvard University.
- ISO 704 (2009), Terminology work Principles and methods.
- ISO 860 (2007), Terminology work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 ISO 1087-1 (2000), Terminology work Vocabulary.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 ISO 10241 (1992),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 Preparation and layout.
- ISO 22134 (2007), Practical guidelines for socioterminology.
- ISO/IEC Guide 2 (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General vocabulary.

- Maurais, J. (1993),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d.≫, H. Sonneveld

 & K.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Philadelphia.
- Rey, A. (1995), «Essays on Termin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Strehlow, R. (1993), "Terminology Standardization in the Physical Sciences", ≪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d.≫, H. Sonneveld & K.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UNESCO (2005), «Guidelindes for terminology poli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ies», UNESCO, Paris.
- Wright, S. & Budin, G. (1997),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Basic Aspects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Wright, S. & Budin, G. (2001),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Application–Oriented Terminology management≫,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